



KIEP 기초자료
19-16

2019년 8월 30일

라오스의 경제 현황 및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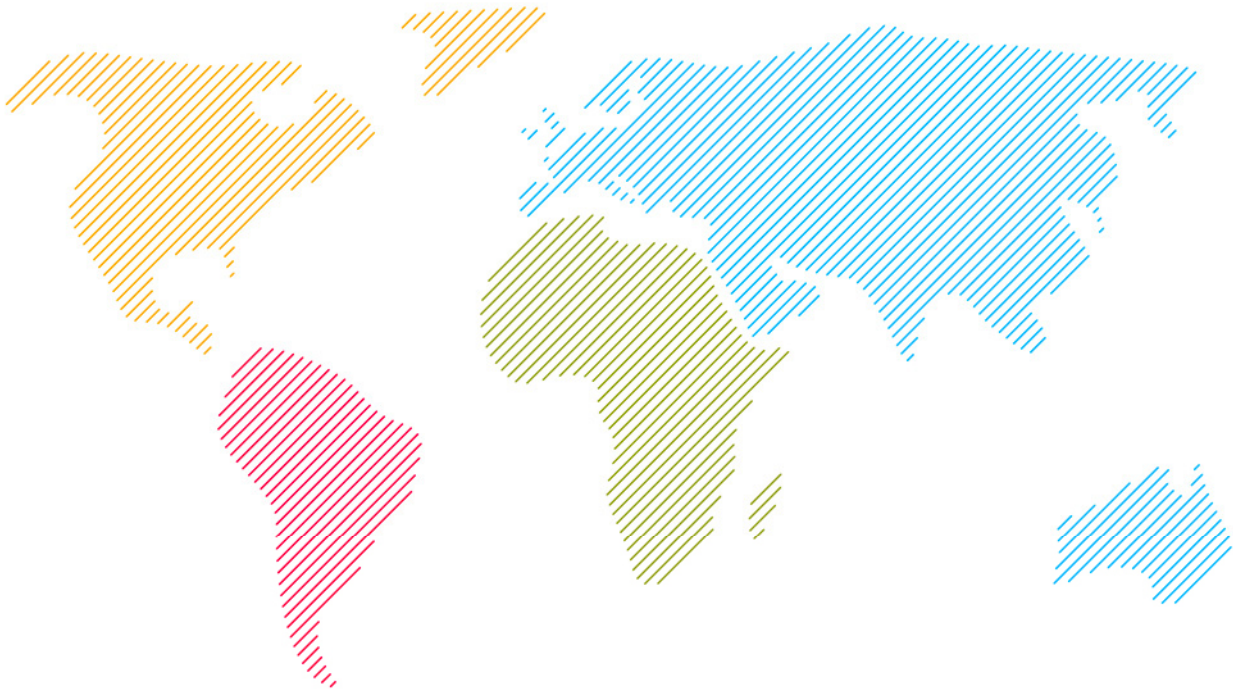
김미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mlkim@kiep.go.kr, 044-414-1096)



라오스의 경제 현황 및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요약

- ▶ 라오스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인 아세안의 일원이나 한국과 라오스의 경제협력은 여타 아시아 국가와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협력방향 모색이 필요
 - 2018년 한국의 대(對)라오스 교역은 한국의 對베트남 교역의 0.2%, 투자는 1.2%, 금융업 투자는 3.6%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한국의 對라오스 ODA 공여는 베트남의 51.8% 수준이었음.
- ▶ 라오스는 자원기반 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 한계를 드러냈고, 거시경제, 교역, 투자, 개발원조 등 경제 전반에서의 중국 의존도 심화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
 - 수력발전과 광업 등 자원기반 산업은 라오스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산업화에 기여하였으나, 자본집약적이라는 산업 특성상 고용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
 - 라오스의 총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7.8%에서 2018년 23.7%로 증가하였고, 총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13년 45.1%에서 2014~18년 56.8%로 증가하였음.
 - 2017년 기준 라오스에서 진행 중인 일대일로 사업 참여 수는 전 세계 10위를 차지하였으나, 총 대출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0%로 매우 높아 부채 고위험군에 속함.
 - 교역, 투자, 개발협력 등 대외경제 확대에 따른 외환공급 확대는 깡(Kip)화의 낮은 신인도와 맞물리며 미 달러화, 태국 바트화 등 다양한 외국통화가 라오스 경제 내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 ▶ 라오스 정부는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경제특구 개발, 연계성 개선정책, 수력발전정책 재수립 등을 통해 경제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은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제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및 자연재해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라오스는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BRI)와 란창-메콩 협력 메커니즘(LMC),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광역메콩지역(GMS)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 중임.
 - 2018년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붕괴 사건을 계기로 라오스 정부는 경제성과 사회·환경적 비용을 재고하여 수력발전정책을 재수립할 예정임.
- ▶ 한국은 신남방정책의 구현을 위해 라오스의 산업화 및 인적역량 강화, 금융 및 자본 시장 발전, 인적자원 개발 및 환경, 연성 인프라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라오스가 연계성 개선 결과 단순 통로국가(transit country)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한국은 산업인력 양성,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
 -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과 천연자원 관리 수요에 맞추어 한국은 IT 기술기반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천연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지원(TA) 등을 통해 해당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은 물리적 연계성보다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연성 인프라, 즉 제도적 연계성과 인적 연계성 부문에서 라오스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차 례

1. 연구 배경
2. 라오스의 경제 현황과 특징
 - 가. 거시경제
 - 나. 산업
 - 다. 교역
 - 라. FDI
 - 마. 개발원조
 - 바. 달러라이제이션
3. 라오스의 주요 경제개발 전략과 정책
 - 가. 비전 2030과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 나. 경제특구(SEZ) 개발
 - 다. 연계성 개선: 내륙국가(Land-locked)에서 물류 이동 중심지로(Land-linked)
 - 라. 동남아시아의 배터리(Battery of Southeast Asia) 정책
4.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 가. 한·라오스 경제협력 평가
 - 나.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 아세안의 소규모 내륙 국가인 라오스는 메콩 유역의 풍부한 수자원, 광물, 임산물 등 천연자원을 활용한 수출을 기반으로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해왔음.

- 2008~18년 라오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4%였으며, 1인당 실질 GDP는 1,400달러에서 2,500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라오스는 중국-라오스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인프라 투자 지속과 전력 생산 확대로 2019~20년 6.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자원기반 산업은 자본집약적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 국내 기술 발전, 인적자원 개발효과 등이 미약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라오스 정부는 산업구조 다각화와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자원기반 경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공업 육성, 금융업 효율성 향상, 산업인력 양성, 자연재해 대응 및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라오스는 특히 자동차 조립, 기계 부품 조립, 섬유봉제 산업 등 단순가공 제조업을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수출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보고, 2016~20년 해당 제조업의 연간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을 1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라오스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입이 중요하다고 보고, 내륙 국가(Land-locked)라는 한계를 연계성 개선을 통해 극복하고자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 란창-메콩 협력 메커니즘(LMC),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광역메콩지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 중임.
- 2018년 발생한 세피안 세남노이(Xe-Pian Xe-Namnoy) 댐 붕괴 사건으로 라오스 정부는 수력발전댐 신규 투자 승인을 잠정 중단하였고, 경제성과 환경·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수력발전정책을 재수립할 예정임.

■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라 한국과 라오스의 협력 확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본고는 최근 라오스의 경제 현황과 특징, 성장전략 변화와 기존의 한·라오스 경제협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본고는 신남방정책의 번영(Prosperity)과 사람(People) 공동체 구현 차원에서 양국간 경험 방향을 제시함.

2. 라오스의 경제 현황과 특징

가. 거시경제

■ 라오스는 메콩 수자원 개발을 통한 전력 수출과 광업,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건설업 호황에 힘입어 2010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으나,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거시경제 안정성 지표가 악화됨.

- 2016~18년 자연재해 발생과 2018년 세피안 세남노이 댐 붕괴로 최근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라오스는 소비재와 자본재의 대부분을 수입하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옴.
- 미 달러화 강세로 깎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외환보유액은 14억 달러로 IMF 기준 최저 수준임.¹⁾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0년 2.8%에서 2017년 5.6%로 증가하였고 2018년 4.6%로 소폭 감소함.
- 라오스 내 일대일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라오스의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은 2013년 68.6%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84.8%를 기록함.

표 1. 라오스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10~18년)

지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 GDP(증가율, %)	8.0	8.0	7.8	8.0	7.6	7.3	7.0	6.8	6.5
명목 GDP(십억 달러)	7.5	9.0	10.2	11.9	13.3	14.4	15.8	16.8	18.0
1인당 실질 GDP(달러)	1,553	1,677	1,744	1,902	2,038	2,159	2,280	2,401	2,520
재정수지/GDP(%)	-2.8	-1.5	-0.4	-4.8	-3.9	-2.3	-4.6	-5.6	-4.6
대외부채/GDP(%)	87.3	79.0	72.8	68.6	72.7	81.1	85.6	86.5	84.8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6.0	7.6	4.3	6.4	4.1	1.3	1.6	0.8	2.0
경상수지/GDP(%)	0.4	-2.3	-7.3	-7.8	-14.5	-15.8	-8.8	-7.1	-8.5
상품수출액(십억 달러)	1.7	1.9	2.2	2.3	3.3	3.7	4.2	4.8	5.4
상품수입액(십억 달러)	2.1	2.4	3.0	3.1	5.0	5.7	5.4	5.6	6.3
FDI유입액/GDP(%)	4.1	5.8	6.1	5.7	7.3	7.5	5.9	9.9	7.3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0.7	0.7	0.8	0.7	0.9	1.0	0.8	1.2	1.4
환율(깁/US\$, 연평균)	8,259	8,030	8,008	7,860	8,049	8,148	8,179	8,352	8,450

주: 1) 전망치는 음영 표시, 2) 외환보유액은 금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CEIC(검색일: 2019. 7. 23~8. 1); IHS Markit(검색일: 2019. 7. 23); IMF WEO Database(검색일: 2019. 7. 26).

■ 2019~23년 라오스는 민간투자와 전력 수출 증가, 중국·라오스 고속철도 완공 등에 힘입어 6%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경상수지 적자 지속, 중국의 성장 둔화 등 경기 하방요인 작용도 전망됨.

- 라오스 내 다수의 수력발전댐이 완공되고 있어 2019년 초 7,207MW이던 최대 발전가능 출력은 2020년 11,016MW로 증가할 전망이다.²⁾
- 2019년 석유가격은 2018년보다 크게 하락할 것이나, 2020년 국제식량가격 급등과 깎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³⁾
- 2019~20년 전력 수출 증가로 총수출이 12% 증가할 전망이나, 수력발전댐, 고속도로,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총수입이 2019년 13.5%, 2020년 12%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⁴⁾
- 라오스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라오스의 수출과 FDI 유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하방요인은 상방요인(빠른 역내 성장세, ASEAN 통합 심화로 인한 투자·교역·관광 증가)보다 라오스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⁵⁾

1) IMF(2019); IHS Markit(검색일: 2019. 7. 23).

2) EIU(2019), p. 14.

3) EIU(2019), p. 13.

4) ADB(2019).

5) IMF(2019).

표 2. 라오스의 거시경제 전망(2018~23년)

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 GDP(증가율, %)	6.5	6.7	6.8	6.8	6.8	6.8
명목 GDP(십억 달러)	18.0	19.4	21.1	22.9	25.0	27.3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	2.3	2.9	3.0	3.1	3.6
재정수지/GDP(%)	-4.6	-4.8	-5.0	-4.9	-4.9	-4.9
경상수지/GDP(%)	-8.5	-8.5	-8.3	-8.1	-7.8	-7.5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1.4	1.4	1.5	1.5	1.6	1.7
환율(kip/US\$, 연평균)	8,450	8,552	8,602	8,636	8,661	8,683

주: 1) 전망치는 음영 표시, 2) 외환보유액은 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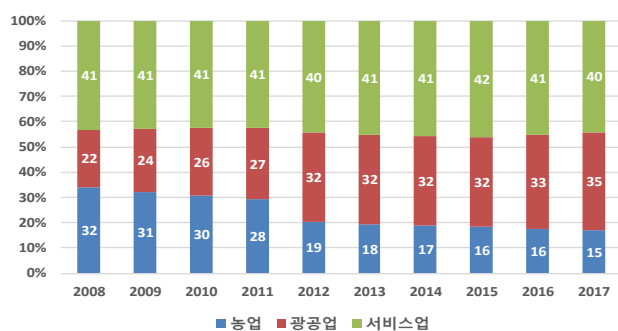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19. 7. 23).

나. 산업

■ 수력발전과 광업 등 자원기반 산업은 라오스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산업화에 기여하였으나, 자본집약적이라는 산업 특성 상 고용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

-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2%에서 2017년 15%로 감소한 반면, 광공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22%에서 35%로 증가하였음.
- 광공업은 자원기반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자원기반 산업의 광공업 내 비중은 2008년 37%에서 2017년 57%로 증가한 반면 광공업이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7%에서 2010년 8.1%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관광업과 같이 대부분 부가가치가 적은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창출이었음.
- 농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업의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노동력이 부가가치가 적은 산업에 고용되어 있음.
- 수력발전댐 다수와 최대발전가능 출력 700MW의 홍사(Hongsa) 갈탄발전소가 완공됨에 따라 2016년 이후 전기업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음.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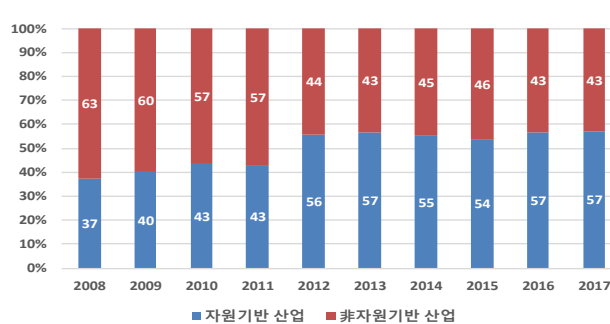
그림 1. 산업별 GDP 비중



주: 실질가격 기준.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8(검색일: 2019. 7. 27).

그림 2. 광공업 내 자원기반 산업 비중



주: 1) 실질가격 기준, 2) 자원기반 산업은 광업과 전기업이며, 비자원기반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업임.

자료: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8(검색일: 2019. 7. 27).

6) ADB(2016), p. 166; *Vientiane Times*(2017).

- 2012년 이후 라오스 정부의 광산개발 신규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광업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건설업 성장세가 두드러짐.

표 3. 업종별 고용 현황

(단위: %, 천 명)

구분	2001	2005	2010
농림어업	82.7	76.3	72.2
광업	8.7		8.1
도소매업 및 자동차, 모터사이클 수리업	8.6		19.7
총 고용	2,445	2,739	3,021

주: 2005년 농림어업 고용 자료만 발표.

자료: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8(검색일: 2019. 7. 27).

표 4. 광공업의 업종별 성장률(2013~17년)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기업	17.5	-0.4	11.3	39.1	32.4
건설업	9.7	11.4	20.7	8.4	18.0
제조업	3.5	9.8	4.4	3.1	4.4
광업	4.5	8.4	-0.1	4.1	-4.3

주: 실질가격 기준.

자료: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8(검색일: 2019.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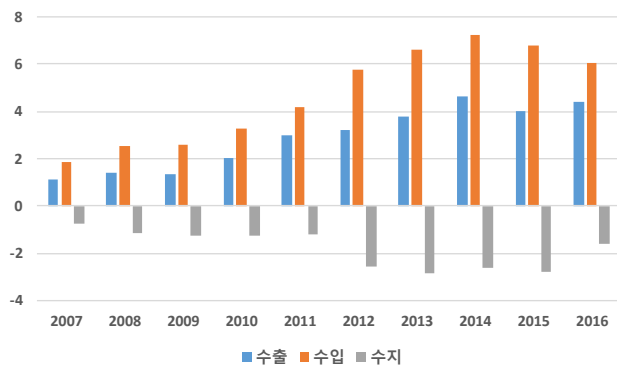
다. 교역기

■ 라오스는 전통적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양상을 보여왔으며, 최근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폭은 축소

- 전력과 광물, 임산물 등 자원기반 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07~16년 동안 총수출이 연평균 16.3% 증가하였음.
- 내수 확대, 제조업 기반 취약 등으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로 2007년 19억 달러이던 수입은 2014년 7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투자 감소로 수입이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도 감소함.

그림 3. 라오스 수출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DOTS, Mirror Data(검색일: 2019. 7. 29~30).

■ 라오스는 전통적으로 태국, 중국, 베트남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는데, 최근 이들 3개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짐.

7) 라오스 교역 분석 시 데이터 신뢰성 문제로 주로 Mirror Data를 사용함. IMF DOTS와 UN Comtrade에서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가 2016년이므로 2007~16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였음.

- 태국, 중국, 베트남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2011년에서 2016년 82.2%에서 86.2%로 증가한 반면, EU, 일본, 미국 이 라오스의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1.8%에서 6.9%로 감소함.
- 2016년 라오스의 주요 전력 수출 대상국은 태국(95.3%)과 베트남(4.7%)이며, 광물, 목재 등 자원기반 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68.2%)과 베트남(12.0%)임.

표 5. 라오스 주요 수출시장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11	2016
1	태국	38.0	42.5
2	중국	26.9	30.3
3	베트남	15.4	7.8
4	EU	10.4	6.3
5	인도	2.2	3.9
6	일본	3.3	2.6
7	미국	2.0	1.2
8	러시아	0.1	0.6
9	한국	0.1	0.6
10	캄보디아	0.0	0.5
	총액	2,981	4,436

자료: IMF DOTS, Mirror Data(검색일: 2019. 7. 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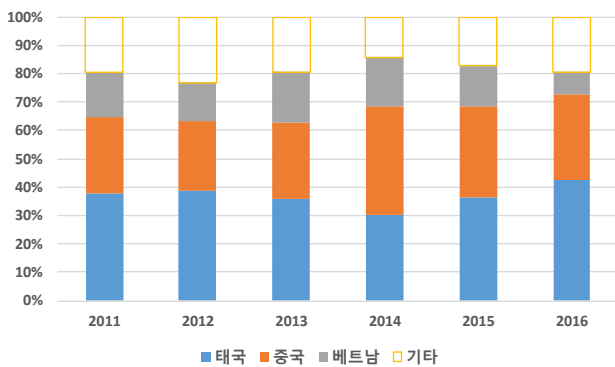
표 6. 라오스 주요 수입시장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11	2016
1	태국	65.6	65.7
2	중국	11.3	16.7
3	베트남	6.6	7.9
4	EU	6.5	2.2
5	한국	3.7	2.1
6	일본	1.9	1.9
7	싱가포르	0.8	0.7
8	미국	0.6	0.5
9	인도	0.4	0.4
10	홍콩	0.7	0.3
	총액	4,172	6,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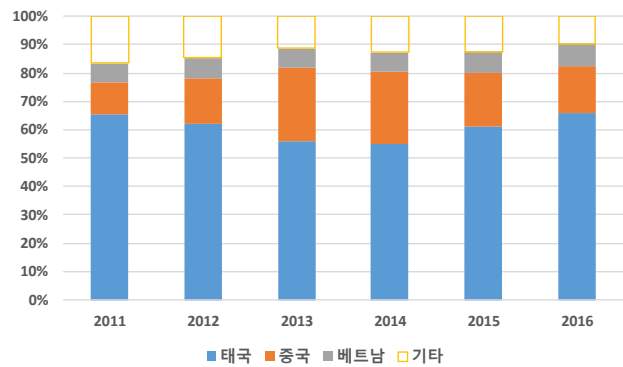
자료: IMF DOTS, Mirror Data(검색일: 2019. 7. 29~30).

그림 4. 라오스의 수출시장 구성 추이



자료: IMF DOTS, Mirror Data(검색일: 2019. 7. 29~30).

그림 5. 라오스의 수입시장 구성 추이



자료: IMF DOTS, Mirror Data(검색일: 2019. 7. 29~30).

■ 2016년 라오스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력, 광물, 목재 등 자원기반 제품과 농산물이며, 수입 품목은 원료에서부터 자본재와 중간재에 이르기까지 생산에 활용되는 다양한 범위의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음.

- 전력, 자원기반 제품, 농산물 이외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기 부품 등 송신기기 부품이 있음.
- 중국에서의 생산비용 상승과 2011년 태국 대홍수에 따라 일본 제조업체들이 태국 주변국으로 생산 분업체계를 확대하는 태국+1 전략을 구사하게 됨.
- 이에 따라 태국 주변국인 라오스, 캄보디아로의 생산기지 확장이 이루어졌고, 라오스의 전자 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함.
- 라오스의 총수출에서 자원기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16년 평균 81%에 달했으나, 최근 자원기반 제품 수출액

이 감소하고 있음.

- 총수입에서 원료인 석유가 2016년 6억 2,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대 수입 품목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어 자본재인 자동차, 중간재인 철강과 시멘트, 제조업 제품인 전자 부품의 수입이 두드러짐.
- 2011~16년 라오스의 수출 품목에서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송신기기 부품(SITC 764)과 기타 미분류(SITC 931) 수출액 증가가 주된 원인임.
- 송신기기 부품 수출액은 2011년 83만 달러에서 2016년 3억 5,070만 달러로 연평균 235% 증가하였고, 기타 미분류 수출액은 같은 기간 110만 달러에서 3억 2,600만 달러로 연평균 212% 증가하였음.⁸⁾

표 7. 라오스의 수출 품목 구성 추이(2011~16년)

(단위: %)

품목 분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력		15.0	15.3	15.5	12.4	14.2	23.9
자원기반 제품	비농업기반	19.1	18.4	18.2	12.7	12.0	12.2
	농업기반	21.3	20.4	25.8	38.7	23.8	10.3
농산물		31.8	31.6	28.2	22.8	23.7	21.9
기타		12.8	14.2	12.2	13.4	26.2	31.7

주: 자원기반 제품의 분류는 Lall(2000)을 따름.

자료: UN Comtrade, Mirror Data(검색일: 2019. 7. 29).

표 8. 라오스의 10대 수출 품목 비교(2011년,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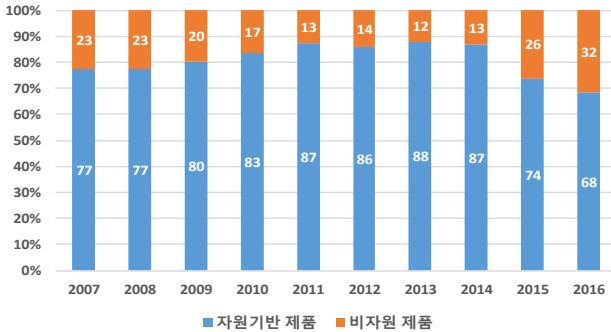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2011			2016			
	HS코드	품목	비중	HS코드	품목	비중	
1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22.0	2716	전기에너지	23.9	
2	2603	구리광과 그 정광	16.9	2603	구리광과 그 정광	10.1	
3	2716	전기에너지	15.0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8.6	
4	4407	제재목	10.8	8529	송신기기 부분품	5.3	
5	4403	원목	8.7	4403	원목	4.3	
6	0901	커피	3.3	7108	금	3.4	
7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양상블	2.9	4001	천연고무·발라타 등 천연 검	3.4	
8	4001	천연고무·발라타 등 천연 검	1.3	4407	제재목	3.1	
9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1.2	8517	전화기와 기타 송수신용 기기	2.6	
10	1005	옥수수	1.1	3104	칼륨비료	2.4	
기타			16.9	기타			33.0
총계			3,025	총계			4,440

자료: UN Comtrade, Mirror Data(검색일: 2019. 7. 29).

8) UN Comtrade, Mirror Data(검색일: 2019. 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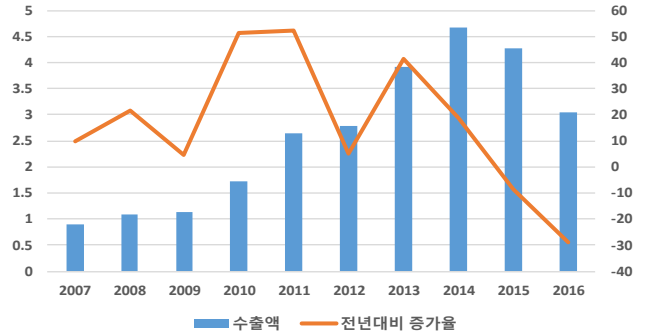
그림 6. 자원기반 제품의 총수출 내 비중



자료: UN Comtrade, Mirror Data(검색일: 2019. 7. 29).

그림 7. 자원기반 제품 수출 추이

(단위: 십억 달러(좌), %(우))



자료: UN Comtrade, Mirror Data(검색일: 2019. 7. 29).

표 9. 라오스의 10대 수입품목(2011, 2016년)

(단위: %, 백만 달러)

	2011			2016		
	HS코드	품목	비중	HS코드	품목	비중
1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20.5	87	일반차량	14.4
2	87	일반차량	15.6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11.8
3	84	보일러·기계류	12.6	85	전기기기·TV·VTR	11.5
4	85	전기기기·TV·VTR	5.5	84	보일러·기계류	9.8
5	72	철강	4.0	73	철강제품	6.9
6	88	항공기	3.1	72	철강	3.0
7	73	철강제품	2.8	01	산동물	2.7
8	02	육과 식용설육	2.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5
9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0	02	육과 식용설육	2.1
10	22	음료, 주류, 식초	2.0	22	음료, 주류, 식초	1.8
		기타	29.3		기타	33.5
	총계		4,242	총계		6,021

주: HS코드 4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타의 비중이 2011년 59.2%, 2016년 65.6%로 높게 나타나 HS코드 2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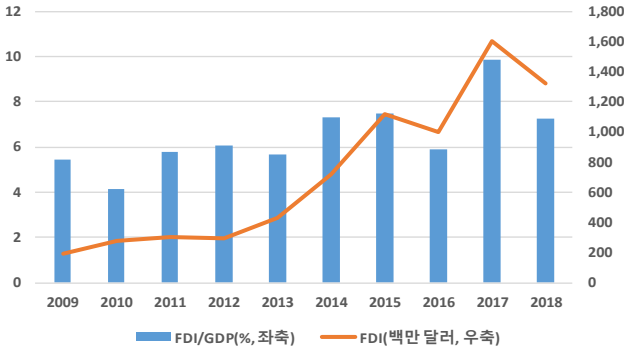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Mirror Data(검색일: 2019. 7. 29).

라. FDI

■ 중국, 베트남, 태국 주도로 빠르게 증가해온 對라오스 FDI는 전통적으로 수력발전과 자원기반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투자 업종 규제 완화로 투자 업종이 비교적 다변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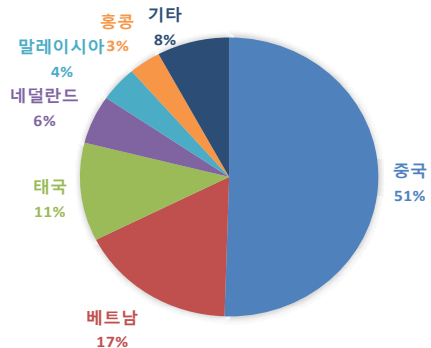
- 라오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18년 13억 2,000만 달러로, 2009~18년 연평균 24.1% 증가하였음.
- 라오스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중국, 베트남, 태국이며, 3개국 중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50% 이상임.
- 라오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수력발전과 자원기반 산업에 집중되었으나, 2015년 도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며 수력발전과 자원기반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됨.

그림 8. 라오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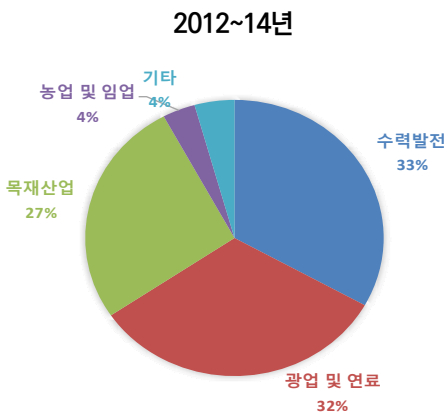
자료: CEIC(검색일: 2019. 7. 23~8. 1); UNCTAD(2019), p. 213; UNCTADstat(검색일: 2019. 7. 30).

그림 9. 對라오스 주요 투자국 비중(2009~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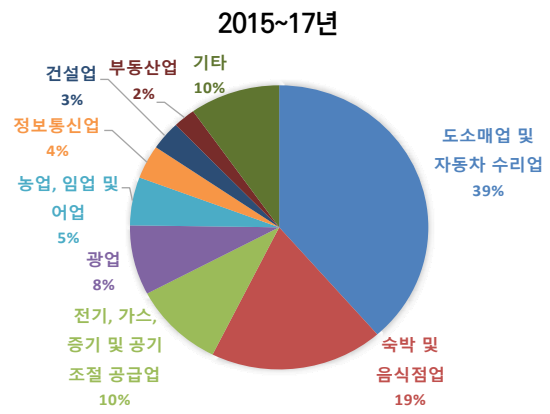


자료: CEIC(검색일: 2019. 7. 23~8. 1).

그림 10. 라오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주요 업종



주: 2015년 이후 산업분류 변경.
자료: CEIC(검색일: 2019. 7. 23~8. 1).



주: 2015년 이후 산업분류 변경.
자료: CEIC(검색일: 2019. 7. 23~8. 1).

마. 개발원조

■ 라오스는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중국으로부터 9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았으나, 그 대부분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공여와 달리 차관과 공적수출신용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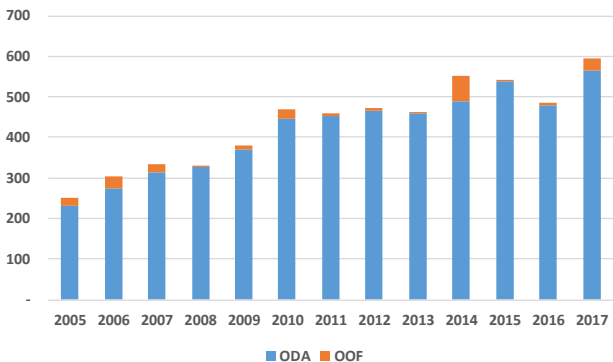
-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라오스에 공여한 원조는 2008년 3억 3,000만 달러에서 2017년 5억 9,300만 달러로 연평균 6.7% 증가하였고, 대부분 무상원조(Grant)라는 특징을 지님.
- 2012년 중국이 중국(보텐)-라오스(비엔티안) 고속철 건설에 기타 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 73억 달러를 제공하고 2011~12년 수력발전담 건설에 차관 20억 달러를 제공하며 중국의 라오스 원조가 크게 증가함.9)

9) OOF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공식 부문 거래를 뜻함. OOF는 ①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여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조금 ②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조금 요소가 25% 미만인 공식적인 양자 거래와 보조금 ③ 보조금 요소가 무엇이든 주로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한 공식 양자 거래를 의미함. OOF는 정의상 공식 기관이 수혜국에 직접 증설한 수출신용, 다자개발은행이 시장 조건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정부와 중앙은행이 순 취득한 금액, 개발도상국 민간투자 보조금 등을 포함함(OECD iLibrary, Statistics, Development resource flows, Other official flows(OOF, 검색일: 2019. 8. 28).

- 라오스가 보텐-비엔티안 고속철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OOF 규모는 2018년 라오스 GDP의 4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채규모와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그림 11. 중국 제외 국제사회의 라오스 원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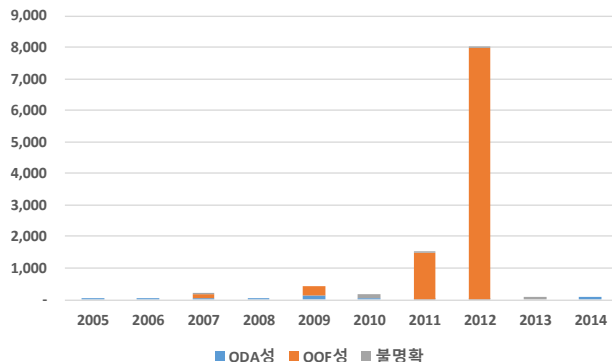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명목가액,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검색일: 2019. 7. 31~8. 28).

그림 12. 중국의 라오스 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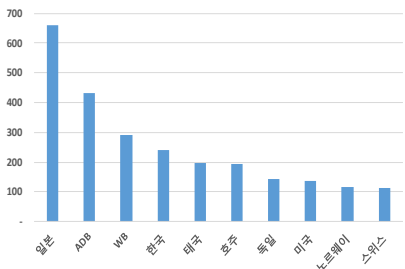
주: 명목가액 기준.
자료: AidData(검색일: 2019. 2. 27).

■ 중국을 제외한 공여국 분포를 보면 일본이 최대 공여국으로, 이는 메콩 유역 개발에 대한 일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함.

- 일본은 2013~17년 총지출 기준 6억 6,000만 달러를 공여하여 공여국과 다자공여기구를 통틀어 전체 공여액의 21.4%를 차지한 최대 공여국이었으며, 양자원조에서는 31.8%를 차지하였음.¹⁰⁾
- 일본정부는 최대 다자공여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일본이 라오스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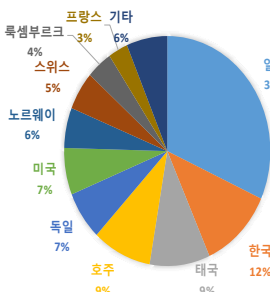
그림 13. 주요 공여국 및 기관(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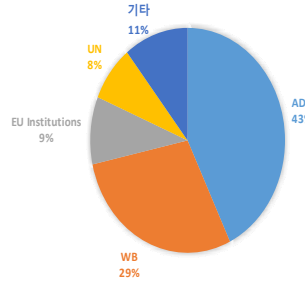
주: 명목가액,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검색일: 2019. 7. 31~8. 28).

그림 14. 주요 양자공여국(2013~17년)



주: 명목가액,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검색일: 2019. 7. 31~8. 28).

그림 15. 주요 다자공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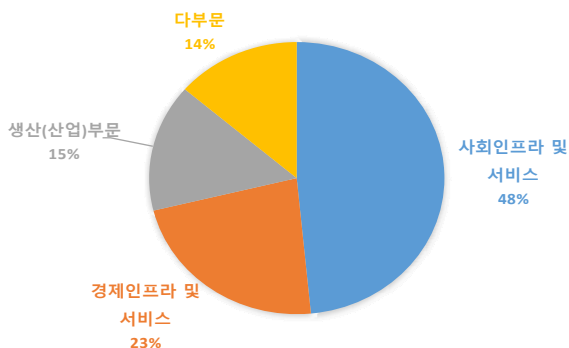
주: 명목가액,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검색일: 2019. 7. 31~8. 28).

10) OECD는 원조 데이터를 총 약정(Gross Commitment)과 총 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으로 발표함. 본고에서는 공여국의 실제 공여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총 지출 기준을 사용하였음.

■ 부문별 공여 현황을 보면 전체의 48%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로 최대이며,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부문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세분류에서는 교육부문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보건의 2위와 3위를 차지하였음.
- 라오스의 교육지표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초등교육 취학률과 졸업률은 각각 85%와 67%에 그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취학률은 각각 42%와 27%에 불과함.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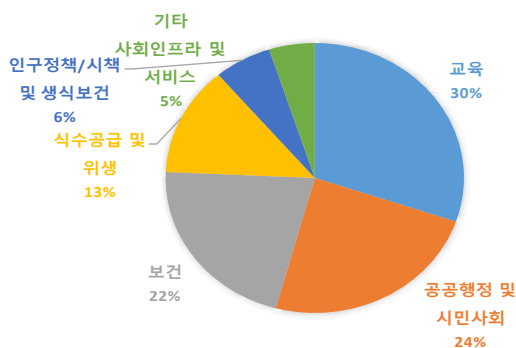
그림 16. 부문별 공여 현황(2013~17년)¹²⁾



주: 명목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검색일: 2019. 7. 31~8. 28).

그림 17.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세분류(2013~17년)



주: 명목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검색일: 2019. 7. 31~8. 28).

바. 달러라이제이션

■ 교역, 투자, 개발협력 등 대외경제 확대에 따른 외환공급 확대는 깎화의 낮은 신인도와 맞물리며 미 달러화, 태국 바트화 등 다양한 외국통화가 라오스 경제 내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달러라이제이션을 낳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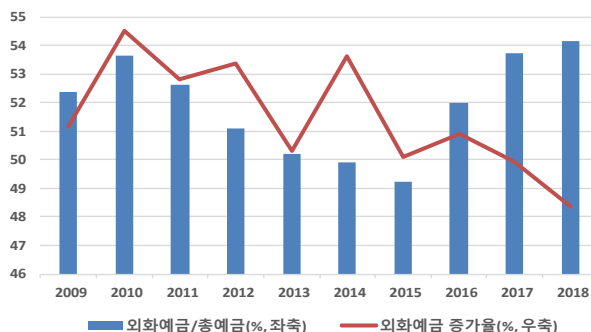
- 달러라이제이션은 근본적 문제라기보다는 증상(Symptom)으로 금융시스템의 저발전,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법·제도의 취약성에 기인한 깎화의 낮은 신인도가 보다 근본적 문제라 할 수 있음.¹³⁾
- 달러라이제이션은 통화 발행을 통한 재정조달 능력(Seigniorage) 약화,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립 불가, 국제수지 조정 경로로서 환율의 역할 제한 등 중앙은행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함.
- 라오스 은행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영은행은 공기업 저리대출로 인한 부실채권비율 상승, 수익성 악화, 적자폭 확대라는 문제를 지님.
- 2019년 3월 은행 총자산에서 국영상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43.9%였고, 부실채권비율은 2012년 1.5%에서 2018년 3.1%로 지속 증가함.¹⁴⁾

11) UNICEF DATA(검색일: 2019. 7. 31).

12) 다부문(Multi-sector)은 환경보호와 같은 범분야(Cross-cutting issue)를 의미함. 다부문에는 환경보호(General environmental protection)와 기타 다부문(Other multisector)이 속하고, 환경보호에는 환경정책 및 행정관리, 생물권역 보호, 생물 다양성, 자연문화유산 보호, 홍수방지/대책, 환경교육/훈련, 환경연구가 포함되며, 기타 다부문에는 다부문 원조, 도시 개발 및 관리, 농촌개발, 비농업분야 마약대체 개발, 기타교육, 연구/과학기관이 포함됨[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2017), p. 151; OECD Statistics(검색일: 2019. 7. 31~8. 28)].

13) Menon, Jayant(2007), p. 2.

그림 18. 라오스의 외화통용 정도



주: 외화통용현상 지수는 외화예금이 총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
자료: CEIC(검색일: 2019. 7. 23~8. 1).

표 10. 라오스의 은행 현황

구분	2009	2013	2018
국영상업은행	4	3	3
특수은행	0	1	1
합작은행	2	2	3
민간은행	7	7	8
제휴은행	0	0	0
은행 자회사	0	3	9
해외영업점	10	16	19
대표사무소	1	0	0
총 은행 수	24	32	43

자료: Bank of the Lao PDR(2019a, p. 32; 2019b, p. 15; 2019c, p. 10).

3. 라오스의 주요 경제개발 전략과 정책

가. 비전 2030과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 라오스의 장기 개발목표인 비전 2030(Vision 2030)은 산업화, 인적자원 개발(Human development), 지속가능한 천연 자원 활용을 통해 2030년까지 중고소득국(Upper-middle income country)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¹⁴⁾

- 비전 2030은 산업화와 현대화를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교육·보건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활용 거버넌스 수립 등을 강조함.
- 비전 2030의 이행전략인 10개년 사회·경제 개발전략(Ten-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16~2025는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y) 지위 졸업을 목표로 함.
 - 10개년 사회·경제 개발전략은 비전 2030의 전략과 같이 산업화와 현대화, 인간 개발, 효율적인 천연자원 활용을 강조하며 이외 거버넌스 개선, 지역·국제 통합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8th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은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특히 경제취약성 지수(Economic Vulnerability Index)와 인적자본지수(Human Assets Index) 개선을 강조함.

- 라오스 정부는 10개년 사회·경제 개발전략의 이행을 위해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을 제시함.
- UN은 3년마다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1인당 GNI, 인적자본지수, 경제취약성 지수를 조사하며, 이들 세 지표 중

14) CEIC(검색일: 2019. 7. 23~8. 1).

15)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2016), p.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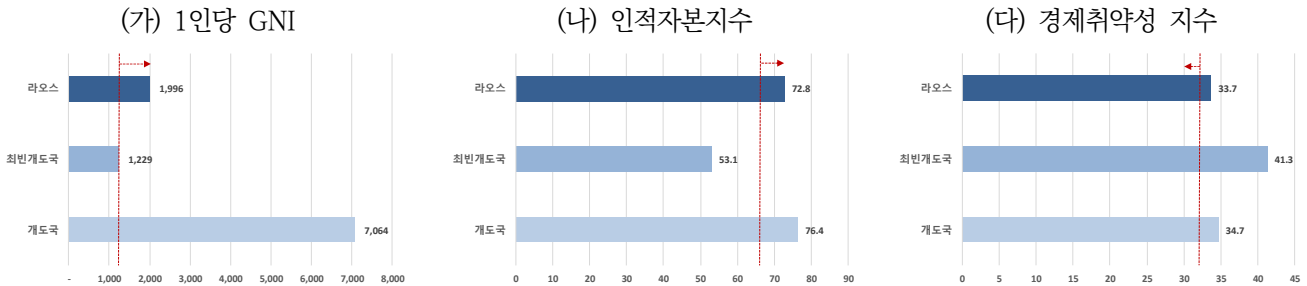
- 두 지표 이상에서 기준 요건을 충족한 국가를 6년의 검토기간을 거쳐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졸업시킴.¹⁶⁾
- 라오스는 2015년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을 위한 UN 평가에서 소득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인적자본지수와 경제취약성 지수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음.
 - o 2015년 라오스의 1인당 GNI는 1,232달러로 졸업기준인 1,23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인적자본지수가 60.8, 경제취약성 지수가 36.2를 기록하며 기준요건에 미치지 못하였음.¹⁷⁾
 - 라오스는 2018년 평가에서 소득요건과 인적자본지수 요건을 만족시키며 처음으로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경제취약성 지수는 여전히 기준에 미치지 못함.¹⁸⁾

표 11.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목표

분야	주요 목표	주요 타겟(Target)
경제	경제취약성 감소	경제취약성 지수(상품수출집중도, 농림업 GDP 비중, 수출불안정성지수 등) 개선
	거시경제 안정성	투자/GDP 비중 30%(공공투자/총투자 9~11%, 차관·무상원조/총투자 12~16%, 민간투자/총투자 54~57%, 은행대출/총투자 19~21%) 달성
인간 개발	인적자본 개발	2020년 인적자본지수 66 이상 기록
	빈곤 감소	교육·보건 지표(저체중 아동 비율, 1,000명당 영아 사망자 수 등) 개선
천연자원·환경	경제취약성 감소	경제취약성 지수(자연재해 인명피해 지수, 농업 생산 불안정지수 등) 개선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2016), pp. 89-93.

그림 19. 라오스 최빈개도국 졸업요건 평가(2018년)



주: 붉은 선은 최빈개도국 졸업 기준선, 화살표는 이상 혹은 이하를 나타냄.

자료: UN Economic Analysis & Policy Division, LDC at a glance(검색일: 2019. 8. 2).

■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은 경제취약성 감소와 인적자본지수 향상을 위해 자원기반 경제로부터의 탈피를 추구하며, 그 수단으로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공업 육성, 산업인력 양성, 금융업 효율성 제고, 자연재해 대응 및 지속가능한 천연 자원 활용 등을 제시함.

-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농림업 19%, 광공업 32%, 서비스업 41%, 수입세 8%의 GDP 구성을 목표로 함.¹⁹⁾
- 자동차, 기계 부품, 섬유봉제 산업 등의 제조업을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수출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보고 해당 제조

16) UN Economic Analysis & Policy Division, Graduation from the LDC category(검색일: 2019. 8. 2).

17) UN Economic Analysis & Policy Division, LDC data(검색일: 2019. 8. 2).

18) UN Economic Analysis & Policy Division, LDC at a glance(검색일: 2019. 8. 2).

19)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2016), p. 94.

업의 연간 성장률 15% 달성, 연간 수출액 15% 증가를 목표로 내세움.²⁰⁾

- 경제특구,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공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 건설업, 자동차 수리, 전자공학, 도시공학, 광산학과 지질학 분야의 산업인력 양성과 산업화를 위한 과학기술인재 양성,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원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함.²¹⁾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자연재해 관리와 예방을 위한 방안과 정책을 개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힘.²²⁾

나. 경제특구(SEZ) 개발

■ 라오스 정부가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개발임.

- 라오스 정부는 이웃 국가인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이 우수한 인프라와 행정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구조 다각화, 글로벌 생산망(GVC) 편입을 도모하고자 함.
- 그러나 라오스가 경제특구 법령을 처음 공포한 시기는 이웃 국가인 캄보디아보다 늦은 2002년이고, 실제로 경제특구 운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2011년 이후임.
 - 2009년 「투자촉진법」, 2010년 「국가경제특구법령」이 발표되며 제도의 구체성이 더해졌으나,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개발되지 않음.
- 최근 중국이 중국-라오스 고속철도를 건설하며 국경지대에 경제특구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라오스 내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특구의 수는 2~3개로 추산되며, 이 중 제조 수출기업 투자를 유치하며 성공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특구는 사바나켓(Savannakhet)의 사반·세노(Savan-SENO) 경제특구에 그침.

■ 사반·세노 경제특구는 대표적인 경제특구 개발 성공사례로, 우수한 연계성과 거버넌스 등을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음.

- 사반·세노 경제특구는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에 위치해 있고, GMS 동서경제회랑상에 있어 태국과 라오스 간 물류 이동과 태국과 베트남의 항구 이용이 용이함.
- 사반·세노 경제특구는 2003년 공포된 「총리령」 148호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2007년 태국-라오스 제2우호교 개통으로 연계성이 개선되고 2008년 말레이시아 개발사의 투자가 이루어진 후인 2011년에야 본격 가동됨.
 - 태국-라오스 제2우호교는 동서경제회랑의 거점 중 하나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차관(7,000만 달러)으로 건설됨.
 - 사반·세노 경제특구는 2007년까지 마카오의 투자로 호텔·카지노 단지만이 존재하는 경제특구였으나, 2008년 말레이시아 기업(Pacifica Streams Development)의 주도로 합작투자(1,400만 달러)가 이루어지며 글로벌 생산망(GVC)에 참여하는 제조 기업들이 입주하는 경제특구로 변모함.
- 사반·세노 경제특구에는 Toyota Boshoku, Musuzu 등 태국+1 전략을 구사하는 일본계 기업들이 주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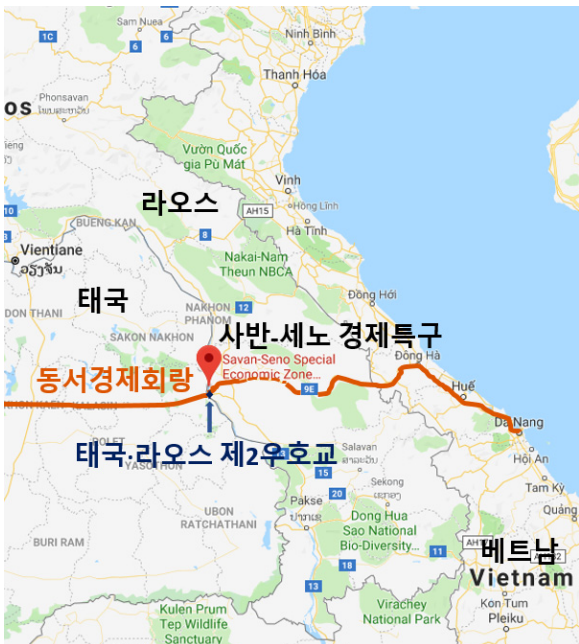
20)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2016), p. 95, p. 115.

21)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2016), p. 118, p. 150.

22)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2016), p. 144, pp. 150-151.

- 라오스 정부는 對라오스 투자의 장애물로 지목되는 높은 행정비용,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열악한 인프라 수준의 해소를 위해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신속한 행정서비스와 비교적 높은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 소비가 많은 제조 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함.
- o 투자 허가 심사 요청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 심사 결과가 발표되며, 경제특구 투자자는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고도 경제특구 내에서 투자 등록, 비자, 근로허가증 발급, 공공시설 이용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타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²³⁾
- o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은 2~10년 간 법인세 면제, 이후 8~10% 납부(경제특구 비입주기업 세율 24%), 수출용 물품 구입 시 관세면제(경제특구 비입주기업 관세율 3~40%), VAT 면세(경제특구 비입주기업 세율 10%), 수출세 면세, 토지 임대 기간 75년까지 연장, 토지 임대료 할인 및 동결, 임대 토지 전대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음.²⁴⁾
-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개발사는 구직 중인 인력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 변동에 따라 인력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라오스 국영기업과의 협력하에 용수를 공급하고 정비한 인프라를 지속 관리하였음.²⁵⁾

그림 20. 라오스 사반·세노 경제특구 위치



자료: ADB(2018), p. 12 참고 및 Google map 활용 저자 작성.

표 12. 라오스 사반·세노 경제특구 구성

구역	위치	면적(ha)	투자 업종·용도
A	태국·라오스 제2우호교 옆	305	교역·서비스
B	카이손폼비한(Kaysone Phomvihane) 시로부터 동쪽으로 28km	28	물류·운송
C	카이손폼비한시로부터 동쪽으로 10km	234	호텔업·도박업 광공업·제조업
D	카이손폼비한시로부터 동쪽으로 8km	118	A구역 원주민 재정착용 주거단지
B1	카이손폼비한시로부터 동쪽으로 25km	300	향후 개발부지

자료: Kyophilavong(2015), p. 90; Nolintha(2011), p. 210.

- 한편 라오스의 경제특구는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가 낮은 저임기반 단순가공단지에 머물러 있어 라오스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VC)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기 위해 산업인력 양성 및 현지 기업가 육성, 금융업 발전, 거버넌스 정비 등이 과제로 제시됨.
- 사반·세노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현지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여 사용하며, 이에 현지로의 기술 이전, 현지 인력의 기술력 향상,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남.

23) ADB(2018), p. 23.

24) Ibid.

25) ADB(2018), pp. 23-24.

- 라오스가 산업구조 다각화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임금 상승에 따른 비교우위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력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기업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적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경제특구 투자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할 금융기관이 필요하고, 경제특구 관련 법·제도와 중앙 정부 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제도의 적용 관련 거버넌스 정비도 과제라 할 수 있음.

다. 연계성 개선: 내륙국가(Land-locked)에서 물류 이동 중심지로(Land-linked)

■ 2001년 라오스 정부는 개발의 주 제약 요인 중 하나인 운송 인프라 낙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송 인프라 개발과 교역 원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륙국가(Land-locked)에서 물류 이동 중심지(Land-linked)로'를 개발 비전으로 채택함.

- 라오스는 운송 인프라 낙후로 인해 물류, 교역 비용이 높아 제조업 생산기지로 발전하는 것과 현지 기업이 글로벌 생산망에 편입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²⁶⁾
- 이에 라오스 정부는 수송로, 복합 운송시스템 개발·개선, 상품·인력의 국제이동 원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계성 개선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산업화, 현대화, 도농간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 라오스는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GMS 프로그램,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이니셔티브, 태국 주도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제(ACMECS) 등 다양한 연계성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운송 인프라를 개발하고 교역 원활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사용해왔음.

표 13.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성과지수(2018년)

국가	종합 물류성과지수		통관	인프라	국제수송	물류 역량	화물 추적	적시성
	순위	점수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싱가포르	7	4.00	6	6	15	3	8	6
태국	32	3.41	36	41	25	32	33	28
베트남	39	3.27	41	47	49	33	34	40
말레이시아	41	3.22	43	40	32	36	47	53
인도네시아	46	3.15	62	51	42	44	39	41
필리핀	60	2.90	85	67	37	69	57	100
브루나이	80	2.71	73	89	113	77	88	80
라오스	82	2.70	74	91	85	83	69	117
캄보디아	98	2.58	109	130	71	111	111	84
미얀마	137	2.30	131	143	144	128	143	108

주: 160개국 대상.

자료: The World Bank, Aggregated LPI(검색일: 2019. 8. 8).

■ 특히 최근 라오스는 국제 연계성 개선 프로그램 중 하나인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활발히 참여

- 중국에 있어 동남아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지리적 근접성을 지닌 일대일로 구현의 핵심 협력지역이며,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주요국으로 진출하는 관문임.

26) OECD(2017), p. 212.

- 라오스는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활용하여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물류 이동 중심지에서 더 나아가 동남아의 핵심통로(Land-bridge)로 도약하고자 함.
- 라오스와 중국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로 라오스는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와 함께 동남아시아 내에서 중국과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임.²⁷⁾

표 14. 라오스·중국 일대일로 협력 연혁

일시	내용
201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커창 총리, 라오스 공식 방문 • 중국과 중국·인도차이나반도경제회랑(China Indochina Peninsula Economic Corridor) 연선국가 간 첫 협력 문서인 '중화인민공화국과 라오스 민주공화국 간 일대일로 건설 협력 공동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채택
201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냥 보라치트(Bounhang Vorachit) 라오스 대통령, 제1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 • '라오스·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협력에 관한 종합 기본 계획', '일대일로 공동 구축을 위한 양자 협력 프로그램(Bilateral Cooperative Program for Joint Construction of B&R)', '일대일로 재원조달을 위한 지침(Guideline Principles for B&R Financing)' 채택
201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국가주석, 라오스 공식 방문 • 라오스 8차 사회경제개발계획, 내륙국가에서 물류 이동 중심지로 전략, 동남아시아의 배터리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13차 5개년 계획의 연계에 합의 • 인프라, 에너지, 금융, 인적 자원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
201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라오스·중국 일대일로 협력 포럼 개최(라오스)

자료: 저자 작성.

■ 라오스와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중점 협력분야인 오통(五通: 정책소통(政策沟通), 인프라 연결(设施联通), 무역원활화(贸易畅通), 자금유통(资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에서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중임.

- 중국-라오스 고속철도는 양국간 일대일로 중점 협력 사업으로 중국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특징을 지님.
 - 중국의 차관 73억 공여로 2016년 착공된 쿤밍-비엔티안 고속철도는 2021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며 향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확장될 계획임.
- 남우(Nam Ou) 폭포 수력발전댐은 중국전력공사가 개발사로 참여 중이며, 투자규모는 27억 3,500만 달러이고 건설방식은 BOT임.
- 라오스 북부 전력망 사업은 남방전력망공사(China Southern Power Grid Yunnan International Co.)가 개발사이며, 투자규모는 3억 200만 달러이고 라오스 북부 4개 주의 전력망을 중국과 연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 양국은 모한-비엔티안 고속철의 시작점과 종착점에 각각 모한·보텐 경제협력구(Mohan·Boten Economic Cooperation Zone)와 사이셋타 개발구(Saysettha Development Zone)를 개발 중임.
 - 모한·보텐 경제협력구는 Yunnan Haicheng Group과 Hong Kong Fuxing Tourism and Entertainment Group이 개발사로 참여하며 중국의 5억 달러 투자로 2016년 착공하였고, 유통·물류, 관광업이 주력 산업인 것으로 알려짐.
 - 사이셋타 개발구는 Yunnan Construction Engineering Group이 개발사로 Yunnan Provincial Overseas Investment Co.의 3억 5,000만 달러 투자로 착공되어, 신재생에너지, 물류, 전기전자 등의 산업 유치를 목표로 함.
- 라오스·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협력에 관한 종합 기본 계획은 7대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농업을 선정하였고, 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업 협력을 진행 중임.

27) LI(2012), pp. 57-58; Royal Xinhua(2012).

표 15. 라오스·중국 오통(五通)별 주요 내용

분야	내용	
정책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오스-중국 일대일로 협력 마스터플랜 (1)라오스-중국 경제회랑, (2)전력, (3)관광 마스터플랜 	
인프라 연결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오스-중국 고속철도, 사바나켓-라오바오(Lao Bao) 철도 비엔티안-중국 국경 고속도로 씨엥콕(XiengKok), 팍벙(Pak Beng), 콕종(Kokjong) 내륙항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우(Nam Ou) 폭포 수력발전 사업 1, 3, 4, 7(2단계) 사이솜본 Nam Ngum III, Nam Ngum V, Pak Lay 수력발전소 라오스 북부 전력망(500 KW) 건설
	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기술과 기기 활용 인공위성 개발, 정보 협력 강화
무역원활 화	산업단지 경제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엔티안 사이셋타 개발구 모한·보텐 경제협력구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칭(라오스) 종합농업단지(Chongqing(Laos) Comprehensive Agricultural Park) 광시성·참파삭주 중국 과실·채소 실험기지(Guangxi-Champasak Base for Experimentation of New Varieties of Chinese Fruits and Vegetables) 윈난성·우돔싸이주 농업기술 단지(Yunnan-Oudomxay Demonstration Park of Agricultural Technology)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쿤밍-비엔티안 고속철도 노선에 따른 관광시설 개발
자금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수출입은행, 실크로드펀드, AIIB, 상하이협력기구 통한 자원 조달 	
민심상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사업, 직업훈련,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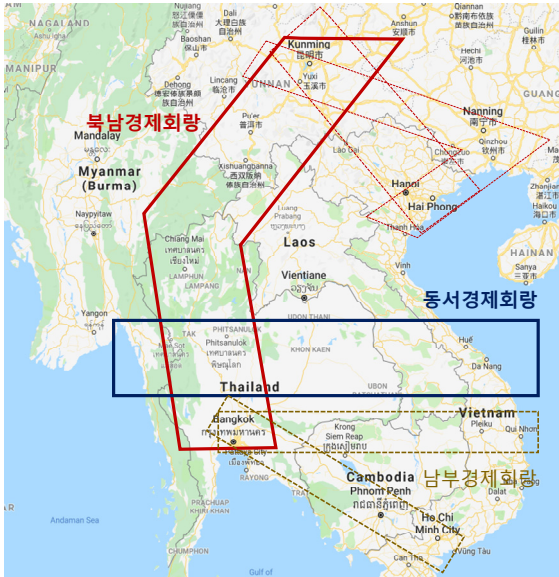
자료: China Economic Information Service Xinhua Silk Road Department, pp. 3-4, pp. 7-8, pp. 12-17, pp. 24-28; Hong and Johnson(2018), pp. 1-3; Sayavong(2018), pp. 5-6.

■ 라오스는 양자 차원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함과 동시에 GMS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며, 소지역 차원에서도 연계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GMS 프로그램은 중국 윈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를 회원으로 하며, 운송 인프라 건설을 통한 회원국간 연계성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함.
- 2013~22년 GMS 프로그램의 투자 프로젝트 143건과 기술원조 프로젝트 84건에 투입될 자원 규모는 각각 657억 2,180만 달러, 2억 9,530만 달러임.²⁸⁾
- 라오스가 관련된 GMS 핵심 사업은 중국 윈난성과 라오스, 태국을 잇는 북남경제회랑(North-South Economic Corridor)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잇는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임.

28) GMS6 and GMS Secretariat(2018), p. 3.

그림 21. 라오스 관련 GMS 경제회랑



자료: Perdiguero(2016), p. 6; Google map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16. GMS 주요 수원국에 대한 GMS 투자

회원	1994~2016년 평균 인구 (백만 명)	1994~2016년 누적 GMS 투자 (백만 달러)	1인당 GMS 투자 (달러)
라오스	5.7	1,372	241
베트남	83.4	4,704	56
캄보디아	13.1	722	55
중국 윈난성, 광시좡족자치구	89.3	4,843	54

자료: Frielink and Bando(2018), p. 5.

- 라오스를 통과하는 북남경제회랑과 동서경제회랑의 구간은 정비가 거의 완료되었고, 특히 동서경제회랑은 회랑상에 위치한 사반·세노 경제특구의 성공적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GMS 프로그램의 주요 수원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과 라오스가 수원한 1인당 GMS 투자액을 비교하면 라오스에 대한 GMS 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남.²⁹⁾

■ 라오스의 연계성 개선정책은 한편으로 중국 의존도 심화, 일대일로 사업 수행으로 인한 다양한 경제, 환경, 사회적 위험 노출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특히 제조업 생산기지 유치를 위한 여타 투자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라오스가 단순 통로국가(Transit country)에 그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라오스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6.9%에서 2016년 30.3%로 증가하였고, 라오스의 총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11.3%에서 2016년 16.7%로 증가함.³⁰⁾
- 라오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13년 45.1%로 이미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4~18년 56.8%로 더욱 증가하였음.³¹⁾
- 2010~14년 중국이 라오스에 공여한 ODA와 OOF 총액은 99억 1,900만 달러로, 이는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라오스에 공여한 ODA와 OOF 총액의 4.1배에 달함.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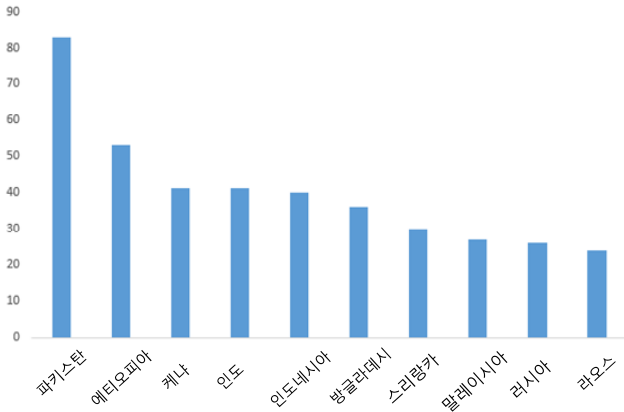
29) Frielink and Bando(2018), pp. 4-5.

30) IMF DOTS, Mirror Data(검색일: 2019. 7. 29~30).

31) CEIC(검색일: 2019. 7. 23~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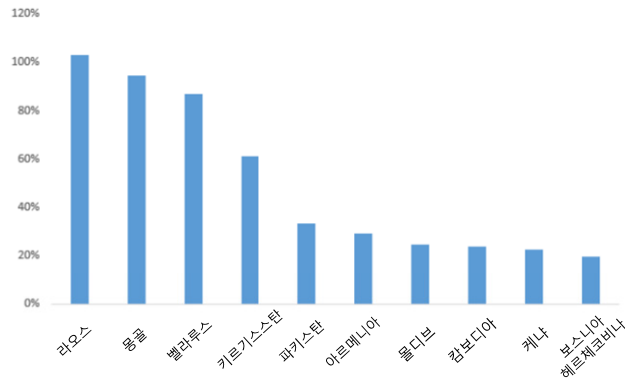
32) OECD Statistics(검색일: 2019. 7. 31~8. 28); AidData(검색일: 2019. 2. 27).

그림 22.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 대한 중국 지원 인프라 사업 수



자료: Sayavong(2018), p. 4.

그림 23.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 대한 중국 지원 인프라 사업규모의 명목 GDP 비중(2017년)



자료: Sayavong(2018), p. 4.

- 라오스는 진행 중인 일대일로 사업 수로는 전 세계 10위를 차지하였으나, 총 대출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로 매우 높아 채무 고위험군에 속함.
- 중국은 국제사회의 환경 기준을 준수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으나, 중국의 인프라 개발 역사, 환경 거버넌스, 지정학적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단시일 내에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동서경제회랑과 북남경제회랑을 통해 라오스를 통과하는 데는 1일이 채 걸리지 않으며, 이에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생산성 향상 등 운송 인프라 외 여타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라오스가 제조업 생산기지가 아닌 단순 물류 통과지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

라. 동남아시아의 배터리(Battery of Southeast Asia) 정책

■ 라오스는 수력발전에 용이한 자연환경과 주변국에 전력을 쉽게 수출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 최빈개도국 지위를 활용하여 1990년대 초부터 수력발전만을 활용한 전력 수출을 성장전략으로 삼아왔음.

- 라오스는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라오스의 연간 총 유량(2,700억m³)은 메콩강 연간 평균 총 유량의 35%에 달하고 수력발전 잠재력은 26~28GW로 추정됨.³³⁾
-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중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최빈개도국인 라오스는 세계은행으로부터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차관을 대출받고 있고,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받음.
 - IDA 차관의 이자율은 0% 혹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30~38년, 유예기간은 5~10년임.³⁴⁾
 - 아시아개발은행의 양허성차관 조건은 상환기간 24~32년 간 이자율 1%, 유예기간 8년 동안 이자율 1.5%임.³⁵⁾

33) Water Environment Partnership in Asia, State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Lao PDR, Overview(검색일: 2019. 8. 7); Lao Institute for Renewable Energy, Topics, Hydropower, Overview(검색일: 2019. 8. 7).

34) IDA, What is IDA?(검색일: 2019. 8. 7).

- 라오스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27개 참여자들의 재정지원(13억 달러)에 힘입어 남테운(Nam Theun)2댐을 완공·운영 중이며, 남테운2댐은 연간 1,000MW의 전력을 태국에 수출하고 국내소비용 전력 70MW를 생산하며, 2010~17년 수입은 1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함.³⁶⁾
-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의한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수력발전댐을 건설한 후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태국과 베트남에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함.

■ 2013년 라오스 정부가 발표한 ‘메콩강유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의 배터리’ 비전은 아세안의 빠른 경제 성장과 경제통합 움직임에 따라 동남아시아 전체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음.

- 2016~20년 아세안 역내 전력수요가 연간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세안은 역내 전력망 연계를 통해 전력 생산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함으로써 아세안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³⁷⁾
- 아세안 파워 그리드 사업은 싱가포르와 말레이반도, 말레이반도와 태국의 전력망을 연계하고 태국을 통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전력망을 연계함으로써 아세안의 역내 전력망을 통합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함.³⁸⁾
- 2010~15년 아세안 파워 그리드 총 16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이행되었고, 해당 기간 역내 연간 전력 교역량은 3,489MW에 달하였음.³⁹⁾

■ 2018년 폭우 이후 발생한 세피안 세남노이 댐 붕괴 사건은 라오스 정부가 기존의 수력발전정책을 재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력발전의 경제성, 환경·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정책을 재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로 사망자 40명, 실종자 66명, 이재민 6천 명이 발생함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2019년 3월 총리령을 통해 2020년 12월까지 수력발전댐 신규투자 허가를 중단하겠다고 밝힘.
- 라오스 내 54개 댐이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임을 고려하면 기후변화에 따라 또 다른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⁴⁰⁾
- 라오스의 최대 전력 수출대상국인 태국은 국내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캄보디아, 베트남도 자체적인 발전 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있음.
- 라오스 정부가 전형적인 BOT 계약에 따라 20~40년 후 댐을 양도받았을 때 감가상각으로 인해 댐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일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하락하고 있어 수력발전의 경제성이 낮아지는 추세임.
- 라오스 내 댐의 수가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 메콩강 하류 유역의 쌀 생산량, 어류 개체 수, 토지 비옥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000만 명의 식량안보가 악화되고 빈곤이 증가할 수 있음.⁴¹⁾

35) ADB, Public Sector(Sovereign) Financing, Financial Products: Public Sector Financing(검색일: 2019. 8. 7); ADB, Public Sector(Sovereign) Financing, Lending Policies(검색일: 2019. 8. 7).

36) The World Bank(2018).

37) ASEAN Secretariat(2015a), p. 17, p. 30.

38) ASEAN Secretariat(2015b).

39) Suppawit Kaewkhounok(2018), p. 9.

40) Kendall Avenia(2018).

41) BBC(2018).

4.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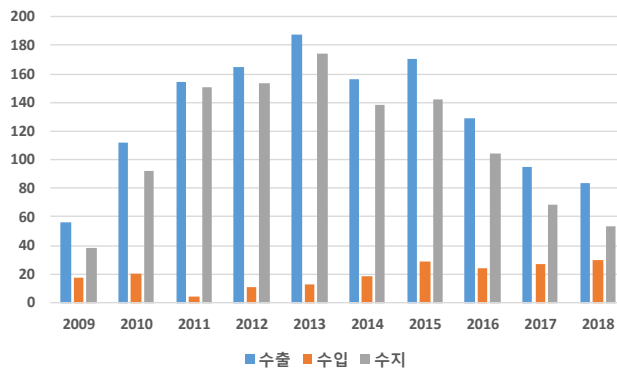
가. 한·라오스 경제협력 평가

■ 한·라오스 교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자동차기업에 의해 완성차와 부품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세안 상품무역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의 발효로 한국산 완성차와 부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교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9년 7,300만 달러이던 한국의 대라오스 교역액은 수출이 증가하며 2013년 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8년 1억 1,400만 달러로 그 규모가 축소됨.
- 1997년 한국계 자동차기업의 라오스 진출과 라오스의 소득 증가, 대규모 인프라 사업 시행으로 승용차, 화물자동차, 부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여 2009년 462만 달러이던 한국의 대라오스 일반차량류 수출액이 2009년 4,600만 달러에서 2013년 1억 6,8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함.

그림 24.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입 추이(2009~18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DOTS(검색일: 2019. 8. 15).

표 17. 한국의 대라오스 10대 수출 품목(2018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	금액	비중
1	87	일반차량	44,684	53.2
2	84	보일러·기계류	10,806	12.9
3	85	전기기기·TV·VTR	5,946	7.1
4	73	철강제품	5,555	6.6
5	19	곡물, 곡분의주제품과빵류	2,135	2.5
6	34	비누, 계면활성제·왁스	1,580	1.9
7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1,351	1.6
8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1,205	1.4
9	30	의료용품	1,188	1.4
10	33	향료·화장품	1,111	1.3
총액			83,953	100.0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9. 8. 15).

표 18. 한국의 대라오스 10대 수입 품목(2018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	금액	비중
1	44	목재·목단	13,385	44.4
2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3,866	12.8
3	85	전기기기·TV·VTR	3,818	12.7
4	08	과실·견과류	2,869	9.5
5	31	비료	2,106	7.0
6	64	신발류	567	1.9
7	09	커피·차·향신료	539	1.8
8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519	1.7
9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502	1.7
10	61	의류(편물제)	355	1.2
총액			30,127	100.0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9. 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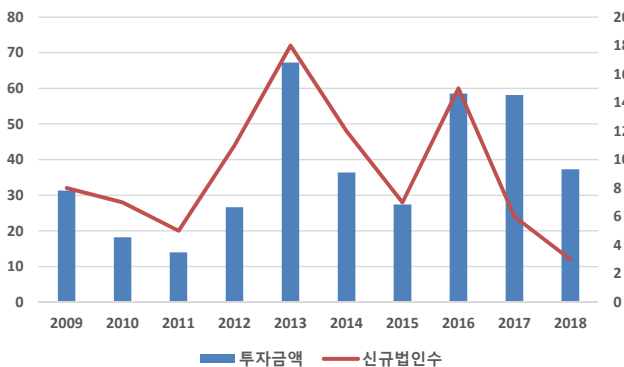
- 그러나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발효로 2015년부터 라오스의 역내 완성차 수입관세가 40%에서 0%로 인하되고 부분품과 부속품의 관세가 10%에서 0%로 철폐됨에 따라 한국산 완성차와 부품의 경쟁력이 하락하며 한국의 대라오스 일반차량류 수출액이 2013년 1억 6,800만 달러에서 2018년 4,5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함.
- 한국의 대라오스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고 2009년 광물성 생산품에 집중되어 있던 품목 구성이 목재제품, 송수신용 기기, 측정기기, 식물성 생산품 등으로 다양화됨.

■ 최근 한국의 라오스 투자는 수력발전업과 금융업 투자 확대에 힘입어 그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투자가 미미하고 그 규모도 비교적 작은 편임.

- SK Engineering & Construction과 한국서부발전이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함에 따라 수력 발전업이 2009~18년 누적 기준 한국의 대라오스 최대 투자 업종이 되었음(1억 4,700만 달러, 39%).
- 2015년 BNK캐피탈을 선두로 DGB캐피탈, KB국민카드, KB캐피탈의 라오스 현지법인 설립이 이어짐에 따라 금융업이 한국의 라오스 투자에서 제2대 투자 업종을 차지함(2009~18년 누적 기준).
- 금융 및 보험업의 세부업종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외국은행(6,620만 달러, 55%), 금융리스업(2,020만 달러, 17%),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2,000만 달러, 17%), 금융시장 관리업(1,380만 달러, 12%) 순임.⁴²⁾

그림 25. 한국의 라오스 직접투자 추이(2009~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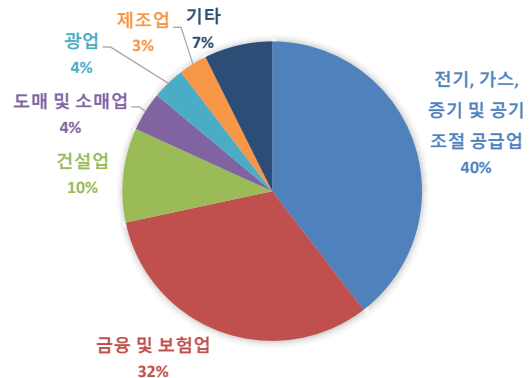
(단위: 좌축 백만 달러, 우축 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9. 8. 17).

그림 26. 한국의 라오스 주요 투자 업종(2009~18년)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9. 8. 17).

- 금융시장 관리업 투자는 한국거래소가 2011년 한국형 증권시장 모델 수출사업의 일환으로 145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라오스증권거래소(LSX)에 대한 투자임.
- 제조업은 2009~18년 누적기준 한국의 라오스 투자에서 3%를 차지하였고, 그중 커피, 수프 등 식료품 제조업(33.2%)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31.4%)이 주요 투자 업종으로 나타남.⁴³⁾
- 같은 기간 한국의 라오스 투자를 캄보디아, 미얀마와 비교하면 한국의 라오스 투자액(3억 7,500만 달러)은 대캄보디아 투자액(13억 3,100만 달러)의 28.2%, 대미얀마 투자액(32억 2,500만 달러)의 11.6%에 불과함.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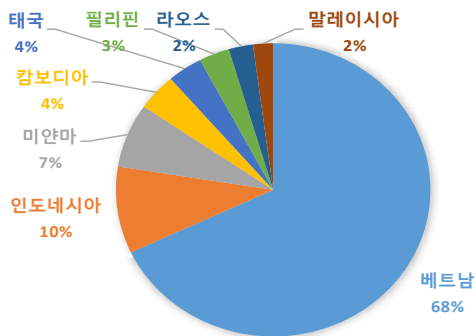
4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9. 8. 17).

43) Ibid.

■ 한국의 동남아 개발원조는 상당부분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인도네시아, 미얀마 3국이 전체의 85%를 차지한 반면, 라오스에 대한 원조는 극히 미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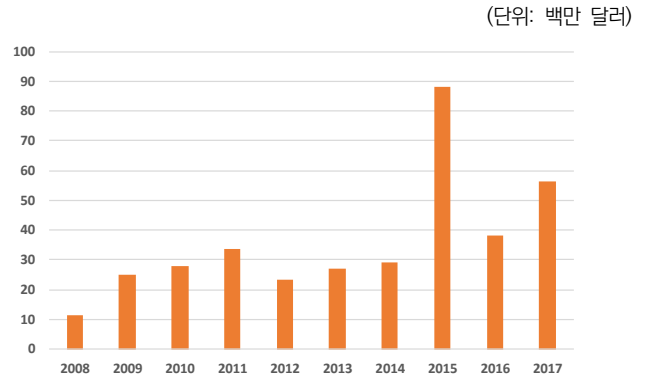
- 2008년 1,200만 달러이던 한국의 라오스 공여는 2015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의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댐 출자(5,822만 달러) 이후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규모가 증가

그림 27. 한국의 동남아 공여(2017년)



주: ODA와 OOF 합계, 명목 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QWIDS(검색일: 2019. 8. 19).

그림 28. 한국의 라오스 공여 추이(2008~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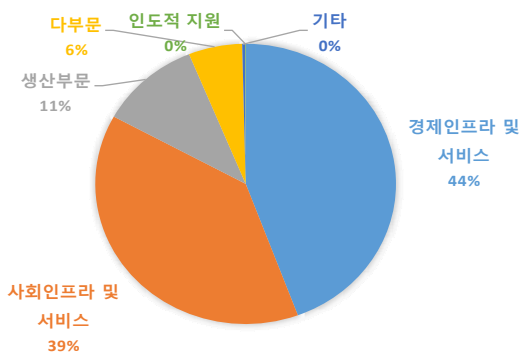


주: ODA와 OOF 합계, 명목 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QWIDS(검색일: 2019. 8. 19).

■ 부문별 공여를 보면 최근 한국의 라오스 원조는 국제사회의 원조와는 달리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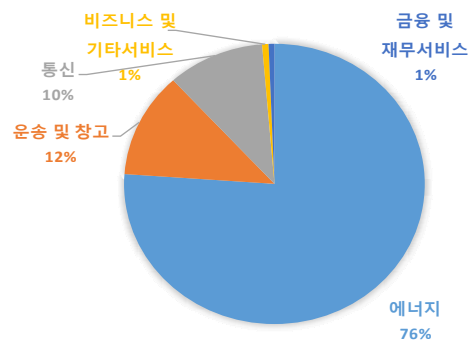
-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은 2013~17년 총지출 기준으로 전체 원조의 44%를 차지하였고 세분류를 보면 세피안 세남노이 댐 건설로 인해 에너지가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76%를 차지하였음.⁴⁵⁾
-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의 세분류를 보면 한국은 식수공급 및 위생(33.6%)과 보건(32.0%)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20.1%),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6.9%)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지님.

그림 29. 한국의 주요 지원부문(2013~17년)



주: ODA와 OOF 합계, 명목 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검색일: 2019. 7. 31~8. 28).

그림 30.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 세분류(2013~17년)



주: ODA와 OOF 합계, 명목 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검색일: 2019. 7. 31~8. 28).

44) Ibid.

45) OECD Statistics(검색일: 2019. 7. 31~8. 28).

■ 한국과 라오스 정부는 천연자원, 금융,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주로 협력해왔으나, 산업화 지원 관련 협력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의 운영이 활발하지 않음.

- 메콩강 수자원 관리사업의 수와 규모가 크게 나타났는데, 해당 사업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제방 축조,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 교량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함.

표 19. 한국정부와 라오스 정부의 양자간 주요 협력사업

분야	사업 이름	이행 연도	사업 규모 (만 달러)	유무상 구분	
천연자원	수자원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2차)	2016~	5,761	유상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2015~	5,306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1차)	2006~07	3,721	
		라오스 남능강 유역 통합 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6~18	268	무상
	광물	ASEAN 특별연수 - 폐광지역 복구 및 광해 방지	2011	-	무상
에너지	세피안 세납노이 수력발전사업(PPP)	2015~47	8,080	유상	
금융	증권시장	라오스증권시장(LSX) 개설 및 운영	2011~	1,380	-
인적자원 개발	산업인력 양성	라오스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사업	2017~30	5,000	무상
	보건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	2017~	10,255	유상

주: 1) 유상원조 사업의 경우 승인액 기준, 2) 연수생 초청사업의 경우 세부 비용 미공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p. 27; KOICA(2013), p. 10; KOICA 통계조회서비스(검색일: 2019. 8. 21).

- 한국거래소가 2011~18년 1,380만 달러를 출자하여 운영 중인 라오스증권시장(LSX)은 운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빠르게 성장 중임.⁴⁶⁾

-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로 한·라오스 경제공동위와 한·라오스 재무장관회의가 있으나 양 협의체 모두 2014년 개최 이후 후속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9년 11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라오스와의 협력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y Network)에 라오스의 루앙프라방과 비엔티안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20. 한·라오스 ASCN 협력사업

분야	도시	내용	목표	재원성격
인프라 (토목/플랜트)	루앙프라방	고대습지 복원	배수처리, 홍수 방지와 병행한 습지 복원을 통해 주 거여건 개선, 생태계 복구 및 관광산업 발전 모색	유상원조
		골목/오솔길 복원	보행·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44개 보행자 도로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유상원조
	비엔티안	배수시설 설치	홍수 방지를 위한 배수처리 개선	미정
솔루션	비엔티안	지속가능한 교통계획 수립	장단기 액션플랜을 포함한 교통전략 로드맵 수립	무상원조

자료: KIEP 내부 입수자료.

46) 2018년 기준 LSX에는 9개 사가 상장해 있고, 시가총액은 2011년 5억 3,188만 달러에서 2018년 11억 3,500만 달러로 연평균 11.4% 증가하였음. 시총 1위는 국영전력기업 EDL_Gen으로 전체 시총의 67%를 차지하였음(LSX(2019), p. 8, p. 12).

나.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 한국은 라오스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국의 풍부한 경험·노하우 활용 차원에서 라오스의 산업구조 다각화와 수출다변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새로운 협력과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라오스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자원기반 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한계를 지니므로 한국은 자동차, 기계, 섬유봉제 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라오스의 산업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라오스 교역은 완성차와 부품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한국은 자동차 소재, 부품, 완성차의 생산 현지화 지원을 통해 라오스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의 발효로 아세안 현지 생산의 중요성이 증대하였고, 라오스 정부가 제조업 육성전략으로 경제특구 개발을 삼고 있으므로 한국은 경제특구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라오스에 전수할 수 있음.

■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자본 시장 발전은 라오스 투자환경 개선의 중요 요소이므로 한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지원으로 설립·운영 중인 라오스증권시장(LSX)은 아직 가시적 성과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이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자문, 기술지원 등을 통해 라오스가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정 통화 깎화의 사용 확대, 달러라이제이션 탈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라오스 정부는 자국 경제의 취약성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로 인적자원 개발과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및 천연자원 관리를 들고 있어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의 구현의 일환으로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라오스가 연계성 개선 결과 단순 통로국가(transit country)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므로, 한국은 신남방정책의 사람공동체(People) 구현 차원에서 산업인력 양성, 직업훈련 등 인적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對라오스 지원은 경제인프라보다는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인프라에 보다 집중된 반면, 한국의 對라오스 지원은 경제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최근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효과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된 반면 천연자원 기반 경제인 라오스는 광물, 수자원, 임산물 등을 지속 관리해야 하므로, 한국은 IT 기술기반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천연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지원(TA) 등을 통해 해당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신남방정책 사람공동체(People) 구현을 위해 교육, 보건·의료, 수자원 부문 ODA 지원과 사람공동체의 주요 추진과제(△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⁴⁷⁾

47)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 주요정책(검색일: 2019. 8. 28); 유애라(2019), p. 18.

- 메콩 유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2019년 11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둔 한국은 물리적 연계성(Physical Connectivity)보다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연성 인프라(Soft Infrastructure), 즉 제도적 연계성(Institutional Connectivity)과 인적 연계성(People-to-People Connectivity) 부문에서 메콩 유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최대 주주로서 1990년대 초부터 운송 인프라를 중심으로 메콩 유역 연계성 개선을 주도해왔고, 2009년부터는 일·메콩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며 메콩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음.
 - 일본은 메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2012 도쿄전략에서 2013~15년 간 메콩 유역 국가들에 ODA 6,000억 엔(56억 3,000만 달러)을 공여하겠다고 약정하였고, 2015 도쿄전략에서는 ODA 7,500억 엔(70억 3,700만 달러), 2018 도쿄전략에서는 ODA 7,000억 엔(65억 6,800만 달러)을 약정하였음.⁴⁸⁾
 - 2015년 중국은 일본 주도의 ADB GMS 프로그램과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메콩 유역 개발협력체(란창·메콩 협력 메커니즘)를 설립하며 메콩 유역 개발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 중국은 2016년 제1차 란창·메콩 협력 정상회의에서 메콩 유역 연계성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양허성 차관 15억 4,000만 달러와 크레딧라인(credit line) 100억 달러 제공을 약속한 데 이어 2018년 제2차 란창·메콩 협력 정상회의에서 차관 10억 8,000만 달러 추가 공여를 약정함.⁴⁹⁾
 - 한국은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한 경성 인프라(Hard infrastructure) 부문보다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IT 기술, 솔루션, 정책, 법·제도, 전자정부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연성 인프라 부문에서 메콩 유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음.
 - 이는 아세안이 중점 추진하고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에도 동일하게 적용
 - 한국은 ASCN을 통한 라오스와의 협력에 있어서 배수처리, 보행자 도로 개선 등 경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이의 효율적인 활용을 뒷받침할 기술 지원(TA), 인력 양성, 시스템, 규범 확립 등 연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KIEP**

48) 이요한(201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12).

49) Xinhua(2018).

참고문헌

[국문자료]

- 유애라. 2019. 「ASEAN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 KIEP 기초자료 19-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요한. 2018. 「[전문가오피니언] 2018 일본-메콩 정상회의와 ‘도쿄전략 2018’」. EMERICs, 10월. 전문가오피니언.
- 한국수출입은행. 2019. 「EDCF 국가별 입찰예정사업」, 2분기.
-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2017. 「2017 세계 ODA 통계자료집 숫자로 보는 ODA」.
- KOICA. 2013. 『KOICA 국별지원 현황 - 라오스』.

[영문자료]

- ADB. 2016. “Asian Development Outlook(ADO) 2016 Update: Meeting the Low-Carbon Growth Challenge.”
- _____. 2018. “The Role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Improving Effectiveness of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rridors.” (November)
- _____. 2019. “Lao PDR’s Economic Growth Outlook to Remain Stable in 2019, 2020 — ADB.” (April 3)
- ASEAN Secretariat. 2015a. “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APAEC) 2016-2025.”
- _____. 2015b. “ASEAN Power Grid Enhancing Electricity Interconnectedness.”
- Bank of the Lao PDR. 2019a. “Annual Economic Report 2009.”
- _____. 2019b. “Annual Economic Report 2013.”
- _____. 2019c. “Annual Economic Report 2018.”
- BBC. 2018. “Laos hydroelectric power ambitions under scrutiny.” (July 24)
- China Economic Information Service Xinhua Silk Road Department. 2018. “Report on China-Loas Cooperation Opportunities und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2018.”
- EIU. 2019. “Country Report Laos.” (June 26)
- Frielink, Barend and Shunsuke Bando. 2018. “Increasing Benefits Through Economic Corridor Development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DB Southeast Asia Working Paper Series No. 17.
- GMS6 and GMS Secretariat. 2016.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Overview of the Regional Investment Framework 2022.” Hanoi, Viet Nam. March 2018.
- Hong, Chen-Sheng and Oliver Johnson. 2018. “Mapping potential climate and development impact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 participatory approach.” SEI discussion brief. (October)
- IMF. 2019. “IMF Staff Concludes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Mission to Lao P.D.R.” (May 21)
- Kendall Avenia. 2018. “Laos dam collapse reveals danger of hydropower infrastructure in an changing climate.” Global Resilience Institute Northeastern University. News. (August 1)
- Kyophilavong Phouphet. 2015. “Progress and Prospect of SEZs in Lao PDR.”

- Li. 2012. "China-Myanmar Comprehensiv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A Regional Threat?"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31, 1, 53-72.
- LSX. 2019. "Performance Report 2018."
- Menon, Jayant. 2007. "Dollarization and the Multiple Currency Phenomenon in Lao PDR: Costs, Benefits and Policy Options." ADB Institute Discussion Paper No. 58.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Tokyo Strategy 2012 for Mekong-Japan Cooperation." (April 12)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16. "8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 Nolintha. 2011. "Cities, SEZs and Connectivity in Major Provinces of Laos." In *Intra- and Inter-City Connectivity in the Mekong Region*, edited by Masami Ishida, BRC Research Report No. 6. Bangkok Research Center, IDE-JETRO.
- OECD. 2017.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LAO PDR."
- Perdiguero, Alfredo. 2016. "Economic Corridor Development: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Experience." Presentation material for G-20 Global Infrastructure Connectivity Forum.
- Sayavong, Vanxay. 2018. "Current Activities of BRI in Lao PDR." Presentation material for National Workshop at 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NIER)
- Suppawit Kaewkhounok. 2018. "The Battery of ASEAN: The Opportunity and lesson of India's energy security." SADF FOCUS Issue N. 39.
- The World Bank. 2018. "Nam Theun 2 Project Overview." (September 28)
- UNCTAD. 2019.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Special Economic Zones."
- Vientiane Times. 2018. "Lao earns US\$975m from electricity sales in 2017." (January 3)
- Xinhua. 2012. "China, Thailand to establish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 (April 19)
- _____. 2018. "China pledges another \$6b loans for Lanchang-Mekong cooperation." (January 11)

[온라인 자료]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 주요정책. <http://www.nsp.go.kr/policy/policy02Page.do>(검색일: 2019. 8. 28).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검색일: 2019. 8. 17).
- ADB. Public Sector(Sovereign) Financing, Financial Products: Public Sector Financing. <https://www.adb.org/site/public-sector-financing/financial-products>(검색일: 2019. 8. 7).
- ADB. Public Sector(Sovereign) Financing, Lending Policies. <https://www.adb.org/site/public-sector-financing/lending-policies>(검색일: 2019. 8. 7).
- AidData. <https://www.aiddata.org/china>(검색일: 2019. 2. 27).
- Asian Development Bank(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8. www.adb.org/statistics(검색일: 2019. 7. 27).

- CEIC. <https://www.ceicdata.com/en/>(검색일: 2019. 7. 23~8. 1).
- IDA. What is IDA? <http://ida.worldbank.org/about/what-is-ida>(검색일: 2019. 8. 7).
- IHS Markit. <https://connect.ihs.com/home>(검색일: 2019. 7. 23).
- IMF DOTS.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검색일: 2019. 8. 15).
- IMF DOTS. Mirror Data.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검색일: 2019. 7. 29~30).
- IMF WEO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1/weodata/index.aspx>(검색일: 2019. 7. 24).
- 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tp://stat.koica.go.kr/ipm/os/acms/areaEacoEacoDetailList.do?lang=ko>(검색일: 2019. 8. 21).
- Lao Institute for Renewable Energy, Topics, Hydropower, Overview. <http://www.lao-ire.org/topics/hydropower.html>(검색일: 2019. 8. 7).
- OECD iLibrary, Statistics, Development resource flows, Other official flows(OOF). https://www.oecd-ilibrary.org/development/other-official-flows-oof/indicator/english_6afef3df-en(검색일: 2019. 8. 28).
-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7. 31~8. 28).
- OECD QWIDS. <https://stats.oecd.org/qwids/>(검색일: 2019. 8. 19).
- The World Bank, Aggregated LPI. <https://lpi.worldbank.org/international/aggregated-ranking>(검색일: 2019. 8. 8).
-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data/>(검색일: 2019. 8. 15).
- UN Comtrade. Mirror Data. <https://comtrade.un.org/data/>(검색일: 2019. 7. 29).
- UN Economic Analysis & Policy Division, Graduation from the LDC category.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least-developed-country-category/lcd-graduation.html>(검색일: 2019. 8. 2).
- UN Economic Analysis & Policy Division, LDC at a glance.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least-developed-country-category/lcds-at-a-glance.html>(검색일: 2019. 8. 2).
- UN Economic Analysis & Policy Division, LDC data.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least-developed-country-category/lcd-data-retrieval.html>(검색일: 2019. 8. 2).
- UNCTADstat. https://unctadstat.unctad.org/wds/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sCS_ChosenLang=en(검색일: 2019. 7. 30).
- UNICEF DATA. <https://data.unicef.org/>(검색일: 2019. 7. 31).
- Water Environment Partnership in Asia, State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Lao PDR, Overview. <http://www.wepa-db.net/policies/state/laos/overview.htm>(검색일: 2019. 8. 7).